

##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back to the bible**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ubf**의 정체성이 바로 성경공부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저는 여기서 **ubf**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ack to the bible** 이 유언의 말씀의 의미는 이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살아 계신 40년 **ubf** 역사동안 끊임 없이 말씀공부에서 **ubf**가 떠나고자 했고 또 많이 떠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 계신 동안 어찌든지 **ubf**를 말씀공부로 돌아오게 하고자 몸부림 치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분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깨우쳐 말씀공부만을 강조할 힘을 가지신 분이 없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때 만큼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 자기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해서 저 역시 말씀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의 한 사람으로 이를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왜 우리가 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써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단을 쳐부수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지만 이 땅의 지배자가 사단으로 늘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여 자기 손 안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복음으로 사단의 정체와 거짓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냄으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참 지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며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66 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 권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든지 성경공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반면 사단에게 가장 골 아픈 것이 바로 성경공부입니다. 해서 복음의 완성 이후 성경공부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은 늘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과도 같은 내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는 말은 원수가 있어 빼앗고자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영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므로 이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또 자주 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깊은 성경공부 특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제자 디모데에게 후서 1:13,14 절에서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2번 씩이나 강조 합니다. 사단은 여러 외경으로 복음을 어지럽히려 했으나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27 권 신약을 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성경을 깊이 공부한 바울 서신을 택하게 하셔서 복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카톨릭 교회를 통해 성경공부를 금지 시켜버렸을 때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경 공부 운동을

하도록 했으나 카톨릭은 종교재판등으로 성경공부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개혁으로 다시 성경공부 운동을 통해 교회를 살렸으나 사단은 인본주의 철학 특히 계몽주의로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언제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성경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세상과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세대에 교회가 극히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고도의 계략 때문입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세상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분이신가를 계시한 책임으로 참 신학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성경 고등 비판을 함으로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 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함으로 성경공부를 하는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쓸데 없는 인간들이 쓴 책을 공부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비록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신학에 대해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신학의 최고봉이라 하면 칼빈이라 할 것입니다. 칼빈이 훌륭한 성경선생이 된 것은 순수하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것을 본받아 성경공부를 하기 보다 그가 공부한 것을 공부하고자 칼빈 신학을 만들고 그분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칼빈은 무엇보다 예정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예정론은 로마서 8,9 장과 에베소서 1 장에 근거 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로 먹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빵가게를 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속에 예수님께서 어찌든지 이 무리를 먹게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을 이해 하는 것이 참 뜻을 이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30 절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롭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말씀속에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택하신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곧 이런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 장, 에서와 야곱 이야기등은 정말 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 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10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들을 구원 하시고자 애를 쓰셨으며 결론인 11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 즉 택하심과 버리심이 하나님 주권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자를 택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버리신다는 것이 9-11 장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이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 장 4,5 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를 예정하신 것으로 착각하는데 에베소서 1:1-14 절 전체를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작품안에서 이미 인간 구원이 예정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경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예정하시고 창조를 시작 했고 타락한 즉시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안에 만물이 하나되게 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참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예정하셨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얼마나 이 예정론이 세계 선교를 막았습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 타락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론이 아닌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예정론이 분명하게 설명이 안되고 애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진리 중에 애매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예정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칼빈이 가르친 것이 100% 진리가 아니라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고등비평은 바로 사단이 신학교에 들어 와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 뜨리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또 사회 복음 신학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속임수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드시 사회복음 신학도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 이땅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룹니다. 진정한 사회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우리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음 신학을 강조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무시 해보십시오. 이는 공산 주의에서 보상이 없는 가운데 평등한 이땅에서의 천국을 강조할 때 오는 현상과 같이 아무도 남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 가는 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누구인가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영신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만들고 또 회개를 멀리하게 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사단의 계약일 뿐입니다. 또 기적, 성령의 능력,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인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인 의에 기초한 이성을 죽임으로 가장 올바르게 이성적이어 할 기독교 인들을 가장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신학의 열매를 저는 크게 4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들보다 더 비이성적으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다보니 가장 진실되어 신뢰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주님의 종들이 너무 뺑이 많아 기독교 불신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쓰레기 같은 가짜 서적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오고 또 유명한 가짜 목사들이 이러한 책들을 권해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온통 기독교인들을 이런 쓰레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하게 하여 사망의 길로 몰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상대적으로 성경공부를 하지 않아 온갖 이단, 거짓말이 기독교 안에 난무해도 누구 하나 이러한 가짜들 앞에서 이것이 왜 가짜인가를 설명하지 못해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 만큼 배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들이 wcc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 는 일말의 논할 가치조차 없는 배교 행위입니다.

이런 시대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마더 배리 선교사님을 통해 **ubf** 를 창조하셨습니다. **ubf** 특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평신도라는 것이요 둘째는 성경공부입니다. 이 두가지는 함께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섬기니 자기들 유익을 위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심이 없이 진리된 성경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번 영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순수 성경공부가 사단에게는 얼마나 곱아픈 것이 될 까요? 해서 어찌든지 사단은 **ubf** 를 순수한 성경공부에서 많이 떠나도록 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고단 수 입니다. 어찌든지 신학 공부가 성경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신학공부를 하라고 부촉일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략을 보고 우리는 끝까지 순수 성경 공부를 지키고자 몸부림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ubf** 의 존재 의미요 금지 있는 시대적 사명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요 또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됩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내 입장을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남도 내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공부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죄인인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기독교 불신 시대에 사심이 없는 평신도들이 일어나 순수 성경공부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기독교 신뢰회복을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ubf** 를 보고 지나치게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한국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증거요, 성경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또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서기관 즉 성경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장님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공부해보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처럼 무식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얼마나 성경공부를 이들이 소홀히 여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사람의 교훈과 인간의 유전을 좇았다고 지적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의 지식을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들을 장님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는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을 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생으로서 몹씨 기분이 상해있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말씀은 비밀로써 읽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닫는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아 장님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몹씨 기분이 상해 우리를 장님, 귀먹어리로 만들겠다고하십니까? 이사야 28, 29 장을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너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배우고자 하지 않고 자꾸 여러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 잘난 인간에게서도 조금, 또 이 잘난 인간에게서도 조금 하며 우리가 경계가 필요해, 우리가 교훈이 필요해 하며 배우고자 애쓴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순수하게 배우면, 저절로 경계를 하게 되고, 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의 모든 지식을 소유한 참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을 쌓고자 하는 자에게 더 이상 가르치고 싶지 않으신 감정과 진리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장님 귀머거리로 만드시겠다 하시고 내게 묻는 너희에게는 묻는 이상 더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날을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에게서 배우는 어리석음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전지 전능하고 가장 좋은 진리를 성경에 계시해 놓았는데 쓸데 없이 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다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잘 배워....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라 응? 왜 내게 오냐? 난 더 이상 네게 가르치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니까...” 아마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이 정도는 아닐 찌라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랍비 즉 선생으로 인사받기를 좋아 한다 너희는 선생이라 부름 받지 마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이다.” 이 말씀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을 안다고 품을 잡고 선생으로 존경받고자 하는 건방진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웃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선생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가운데 우리는 2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안다고 건방지게 다니지 말며 스스로 선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숨겨있고 또 괜히 시간과 물질을 들여 여행을 하며 무엇을 배운다 하지 말고 조용히 가장 가까이 있는 진짜 선생에게 성경공부와 기도를 통해 물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라는 뜻입니다.

3~ 지식과 진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완벽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일점 일획에도 엄청난 뜻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계명이 될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임으로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 부터 무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중요한 진리를 버리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리자신인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또 진리는 이론으로 만이 아닌 실제에서 진리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를 통해 진리임을 증거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여 내 인생의 삶과 결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임을 증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미 검증된 진리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선 무조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데 확신을 주는 것은 우선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되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방향과 결정을 주게 됩니다. 또 확신은 그 진리와 반대 되는 어떤 유혹적인 현상이라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우리를 변함없이 한길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모든 것을 다수 결로 결정하는 민주 사회에서 독선적이라는 욕을 먹는 약점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말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기말에 순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참 진리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참 리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앞에서 참 리더, 즉 자기 위에 오직 하나님만 있게하는 청지기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오직 인간 각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진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확신에 기초한 자신의 자유를 누리 방향없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게 합니다. 이 진리의 확신에 기초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에 쓰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진리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다만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일 뿐 마음에 들어 오지 못해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확신이 없는 지식은 유혹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한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진리된 성경을 사람이 옳바르게 설명한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함부로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야하고 또 성경에 없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세상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2 가지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는 욕심 때문에 세상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최악 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배우고 또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뿌리가 바로 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자기영광 구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성경공부를 떠나 세상에서 배우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주실 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죄악된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기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전혀 내용이 없고 근거 없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이 정말 훌륭하다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훌륭한 인간이라도 선이 1 이라면 죄는 10 이 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 그리스도안에서의 모든 진정한 선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기의 선 1 만 나타내고 10 의 악 또는 죄를 감춘다면 이는 공의에 벗어난 행동으로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데서 나오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죄를 숨기고 잘난점만을 강조하는 사람의 숨겨진 죄도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들이요,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죄악된 본능을 좇는 인간적으로 똑똑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주는 현실 속에 자신을 맞추어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조직과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 조직과 전통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출세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조직을 잘 만들고 또 조직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단은 이 조직과 전통속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는 대개 선한 목적이 있는데 죄악된 인간들은 그 조직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조직을 통해 자신의 출세와 명예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조직을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늘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는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조직은 한마디로 정치 사회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 바리새 공부를 분별없이 열심히 해 바리새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장님이 되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수없이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시므온, 안나, 마리아 의 찬양시를 보면 분명 이분들은 유대교라는 사회 조직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 하지 않았지만 분명 교회의 수장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성을 갖고 있었고 성경만을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bf 라는 조직은 사실 순수 성경공부를 하는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다른 큰 조직으로부터 핍박을 받다 보니 다른 조직의 분위기에 스스로 순응하여 핍박을 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순응하다보니 기독교 사회라는 조직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크게 이룰 수록 사람과 조직의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이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교회는 거룩과 진실이 특징이어야 하고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단 한가지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 조직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 조직이 됩니다. 모든 조직 일원 즉 리더든 양이든 이목적은 바로 이해하고 이 목적을 위해 조직에서 일하고 조직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과 질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순수 성경공부가 절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사랑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야 할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 역시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자체는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하는 능력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결과를 낳고 믿음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투자 즉 순종과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거룩, 진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순종은 뿌리를 보면 진리인 성경공부만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4~성경은 우리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마음과 이성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의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 의로운 것이 곧 진리로 받아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해서 의로운 것이 이성에 기초해 논리전개가 가능하며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마음에 진리로 잡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말하면 진리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교과서를 공부하고 소화하여 실제 삶인 성경 교과서와 다른 응용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고 꼭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이성적인 생각을 최대한 발전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과서 문제를 잘 풀어도 응용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교과서를 외운 것 뿐이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해능력을 개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판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판능력은 진리를 알면 자연히 얻어 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서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음 같이 진리를 알면 자연히 거짓을 구별하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는 빛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깊은 성경공부를 하며 의에 기초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곧 우리의 실제적인 삶 즉 응용문제를 진리에 기초한 참다운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풀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속지 않고 남에게 속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해있는 진리를 깨우쳐 진리 적용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 바로 이점을 훈련시킨 것을 수 없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실제 생활에서 세상지식, 세상 지혜는 우리로 진리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기 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길을 주는데 각자가 스스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죄가 자기 인생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주된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연히 자신의 인생을 드려 이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참 유혹적이고 그럴 듯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은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만 알면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데 문제는 세상 지식이 있으면 위기 때에 성경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세상지식 대로 행하게 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 지식은 성경진리와 많은 경우 상반이 되는데 당장 현실을 보면, 세상지식이 더 지혜롭게 보여 인간이 세상지식과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대개 성경 진리를 버리고 세상 지식을 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6~ 진리를 아는 것이 세상 지식을 빠르게, 정확히 알고 소화하게 합니다.

한 똑똑한 일본 철학도가 연못에 빠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다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칸트 너 뭘 아냐? 칸트는 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긴 책을 읽어보아도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식은 저자 또는 강사들이 최악된 인간이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아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쓸데없이 길게 써 독자로 하여금 시간 낭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속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독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이 사람들이 쓴 책 속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묵상과 기도로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진리는 논리 전개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원칙으로만 전개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며 확실하게 전개 됩니다. 단순하고 깊은 진리의 원칙인 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지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교훈 삼을 것은 교훈삼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느라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상지식을 정확히 소화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진리는 빛과 같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주 빨리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7~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은 흠으로 지음 받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흠으로 지음 받아 인간에게는 크게 5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먹고 더러운 똥을 사는 존재요, 잠을 자야 하는 쉬어야 하는 존재요, 잘 아픈 연약한 존재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시험이 올 때 조금 방심하면 바로 넘어지는 최악된 존재요, 육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세계를 볼수 없는 장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위의 5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여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가난한 곳에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 육신에 갇혀 절대로 그냥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미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의 최고의 조건이 있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도 절망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끊임 없이 준비해나가며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 이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 성경을 공부 못하게 하며 대신 많은 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 미래를 속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책은 성경뿐입니다. 특히 요즈음 모든 정세와 세상의 최악된 꼴을 보고 생각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이 위험한 때에 미래를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제대로 알면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고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영을 알고 이를 기초해 우리를 구원 또는 심판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장래를 성경대로 확실히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라합을 위해 스파이를 보내 구원 하심같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데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7절 8절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의 가증한 음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왜 놀라냐? 질문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사도 요한도 육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습관 때문에 도저히 천사가 보여주는 비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의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현재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음녀와 간음을 행하며 짝을 짓고 자기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의 육신은 옷과 같아서 이땅에서 죽음으로 그 옷을 벗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해 우리에게 확실한 영적인 세계, 미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를 소홀히 하면 스스로 장님으로 살고 미래의 준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8~ 우리는 평신도라는 시간의 한계의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기독교 불신 시대에 있는 지금 세계선교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가 특히 block 사회에서 얼마나 큰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인데 우리는 이 장점에 따르는 큰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바로 시간의 한계입니다. 평신도는 한마디로 생계자립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인생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최고 70 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많은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해 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자기 전공과 성경공부만을 해야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공공부는 우리에게 적은 시간에 충분한 돈을 벌게 하고 돈은 우리에게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는 바로 우리 생명을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바로 목적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이야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는 그 동안 속에서 꿈꿨던 것들이 여기 저기 터져 외부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운동, 회개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공부를 소홀히 하는데서 온 것임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성경공부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UBF 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공부를 소홀히 하면 타성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정작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깊은 말씀공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 말씀공부를 소홀히 하면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을 보지 못하고 본능을 좇아 그리로 가게 합니다. UBF 는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말씀공부소홀은 각자 각자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게 하며 결과적으로 UBF 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할 수 있고 참 목적과 존재 의미의 상실과 함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총 16 장중에 1-4 장은 교회 분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볼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세상지식을 섞어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결과 스스로 교인들에게 인기있었으나 교인들을 교만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며 결국 교인들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가 바로 성경 더하기 세상지식인가 순수 성경지식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볼로에 관한 열매는 바로 고린도서에서 맺은 죄의 열매 밖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반면 바울은 가장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위나 세상 학문적인 지식 타이틀로 존경 받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궤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 성경공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